



에메 세제르의 『귀향 수첩』 과 네그리튀드

심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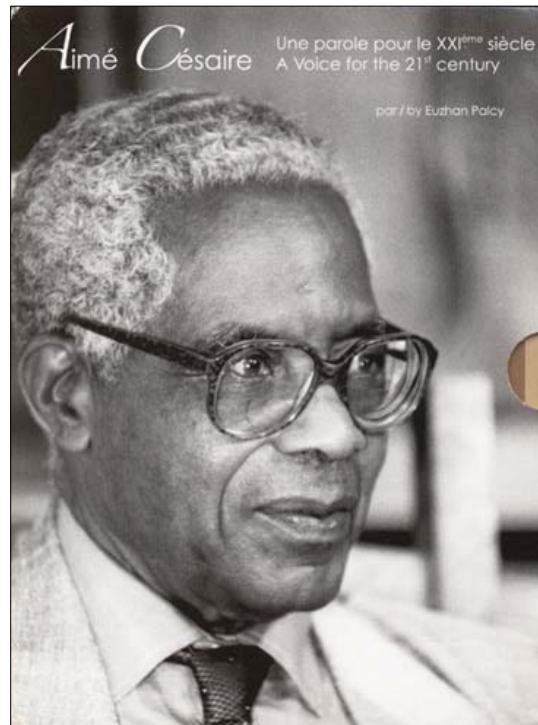
『귀향 수첩』 이¹⁾ 처음으로 세상에 발표된 것은 1939년의 일이고, 저자인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는 2008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미 70년의 세월이 흐른 작품에 대해 새삼 서평을 쓰자니 어색한 느낌도 없지 않지만, 그의 죽음을 계기로 네그리튀드의 의의에 대해 다시 한 번 회고해 보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카리브 정체성 담론의 차원에서든 범아프리카 흑인민족주의 문학과 담론의 차원에서든, 『귀향 수첩』은 가장 중요한 고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품들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물론 『귀향 수첩』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데는 초현실주의자 앙드레 브르통이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글이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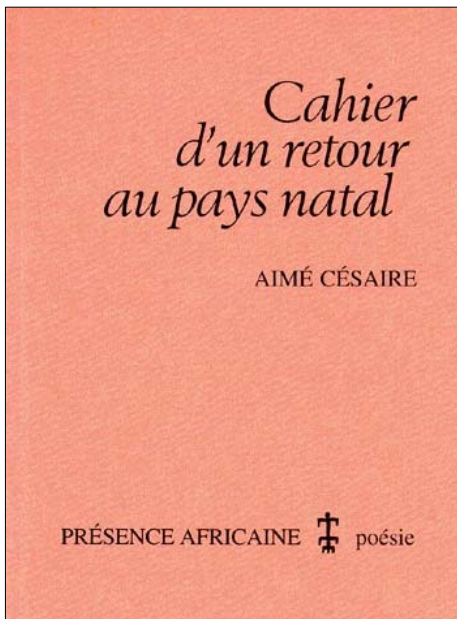
1) 『귀향 수첩』의 우리말 번역본이 나와 있긴 하지만, 영역판을 번역한 것이라서 읽기가 좀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차라리 『귀향 수첩』을 꼼꼼하게 분석해 놓은 글인 「에메 세제르의 네그리튀드와 초현실주의」(오생근, 『프랑스어 문학과 현대성의 인식』)를 참조하는 것이 시의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바가 적지 않았다. 수십 쪽에 달하는 그 산문시에서 서구적 합리성과 이성의 논리를 뛰어넘고자 하는, 뜨겁고 맹렬한 반항의 열기를 읽어낸 브르통은 1943년 뉴욕에서 세제르를 소개하는 짙막한 글을 발표하였고, 나중에 그 글을 1947년판 『귀향 수첩』에 서문으로 실었다. 또한 사르트르는 1948년 세네갈의 시인 상고르가 편집한 흑인 시선집의 서문(‘흑인 오르페우스’)에서 식민지 출신 흑인의 치열한 자의식과 실존적 각성의 고통을 변증법적인 시각에서 해석·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제르의 『귀향 수첩』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 이후의 카리브 정체성 문학과 담론, 그리고 아프리카-흑인 민족주의 문학과 담론의 형성에 끼친 영향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문학을 소개하는 책(『프랑스어권 문학 III. 흑아프리카/인도양』)의 공동 저자인 오세(M. Hausser)는 흑아프리카의 프랑스어 문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글의 거의 절반 정도를 네그리튀드 문학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이다.

세제르의 『귀향 수첩』은 고향인 마르티니크의 풍경 앞에서 시인이 경험한 내적 의식의 동요와 각성을 강렬한 이미지와 일탈적인 구문, 혁명적인 열기가 느껴지는 격렬한 문체 속에 담아낸 산문시이다. 잘 알다시피, 에메 세제르는 1913년에 카리브의 프랑



에메 세제르



『귀향 수첩』의 붙어판 표지

스 식민지였던 마르티니크에서 흑인 노예의 후예로 태어났다. 장학금을 받아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에서 공부하였고, 학위를 받은 1939년에 고향인 마르티니크로 돌아갔다. 요컨대 그 시에서 ‘귀향’이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마르티니크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낯설어할 수밖에 없었던 한 시인·지식인의 역설적인 귀향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시의 전반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절망과 분노, 회한의 외침들은 분열되고 찢

겨진 시인의 내면의식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체념과 절망에 빠져 있는 마르티니크, 삶에 대한 신념도 열정도 상실한 채 무기력에 빠져 있는 마르티니크인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냉철한 의식은 냉철하다 못해 거의 비극적인 수준으로, 광기의 수준으로까지 고양되어 있다.

“배고픈 앤틸리스, (...) 천연두로 얹은, (...) 알콜로 결판이 난, 저 만(灣)의 진흙 속에 좌초한, 저 도시의 먼지 속에 음산하게 좌초한 앤틸리스.” 그러한 현실에 가난과 소외로 얼룩진 시인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포개어지고, 노예제를 통해 언어와 뿌리를 상실한 마르티니크 흑인들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포개어진다.

일반적으로 세제르의 네그리튀드는 상고르가 주도한 네그리튀드에 비해 좀 더 급진적·투쟁적·민중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한 평가는 상고르의 시가 ‘아프리카의 원초적인 밀림의

신비와 아프리카인의 영혼을 종교적인 감성으로 찬미하는 노래'였다면, 세제르의 시는 '현실에 대한 거부와 부정의 외침, 흑인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과 그에 대한 극복의 의지'로 가득 차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토착 문화 속에서 자라난 상고르(Léopold Sédar Senghor)의 네그리튀드와 달리, 세제르의 네그리튀드는 뿌리 뽑힌 흑인노예들의 네그리튀드였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제르는 『귀향 수첩』에서 “처음으로 네그리튀드가 일어선 곳인 아이티”를 말하고, 아이티 독립의 영웅인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가 죽어간 “쥐라의 작은 감옥”에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들, 노예선의 토사물들”이 살아가는 땅, 치욕의 진창 속에 “평퍼짐하게 누운 도시”의 악몽 같은 현실 속으로 귀환한 흑인 지식인의 내적 여정은 네그리튀드라는 에우리디케를 양손에 거머쥐고 대지 위에 당당히 서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로 귀결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어섰다, 나의 고향과 나, 바람에 머리카락 휘날리며, 지금 내 작은 손은 제 거대한 주먹 속에 있고, 힘은 우리 속이 아니라 우리들 위, 종말의 말벌이 찌르듯 밤과 청중들을 나사송곳으로 뚫는 목소리 속에 있다.” 나아가서 시인은 흑인도 보편적인 인류 문화의 창조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한다. “내 입은 입이 없는 불행한 자들의 입이 될 것이고, 내 목소리는 절망의 감옥에서 쓰러지는 목소리들의 자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예제와 식민지배의 역사가 흑인들에게 남겨놓은 현실과 내면의 질곡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고, 그 내적 싸움의 첫 번째 기록이 바로 『귀향 수첩』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세제르의 네그리튀드는 식민지 흑인들의 소외를 만들



아이티 독립군을 지휘하는 투상 루베르튀르

어낸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와 외침이었고, 서구적인 가치에 의해 억압당해 온 흑인성을 망각의 어둠으로부터 복원해내려는 시도의 표현이었다. 또한 흑인 스스로 치욕스런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탄생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스스로의 운명을 양손에 거머쥐고자 하는 인간적 존엄성의 표현이었다. 물론 세제르 이후에 프랑스 어권 카리브에서는 카리브 특유의 혼종적 현실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정체성 담론들이 등장하면서 지나치

게 ‘흑인의 뿌리 정체성’을 강조한 네그리튀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까지도 네그리튀드의 탈식민적 저항성이 갖는 역사성이 (불행하게도) 그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지는 않다.□